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숲가마 등치기 소리

- 갯골막 및 금바리 숲가마 -



⇒ 일시 : 2007. 6. 1 ~ 2

⇒ 장소 : 홍천군종합운동장



인제군
INJE COUNTY

Contents

Contents

I. 숲가마 등치기 소리 연출개요	01
II. 숲가마 등치기 소리 연출마당	02
III. 숲가마 등치기 소리 민속조사	03
IV. 출연자 현황	13

I. 숲가마 등치기 소리 연출개요

- 출연분야 : 민요
- 작품명 : 숲가마 등치기 소리
- 소요기간 : 25분
- 고증 및 제보자 : 장영창(남, 72세)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 연출지도 : 박해순(남, 83세) (前 인제문화원장, 뗏목연구소장)



- 1985년 인제뗏목꾼소리(강원도 최우수상)
- 1987년 인제숯둔골 숯굽기 놀이(강원도 최우수상 및 전국대회 우수상)
- 1999년 인제숲가마 등치기소리(강원도 우수상)

- 출연인원 : 58명(인제군 북면 월학리 냇강마을)
- 구성 : 숲가마주인(1), 소리꾼(2명), 풍물(8명), 농기(3명), 집사·축관(2명)
가래질(10명), 등치기꾼(16명), 지계꾼 外(16명)

• 작품내용

숲가마 등치기 소리는 숯을 구워내기 전단계인 숲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되었다. 숲가마를 만드는 과정은 가마터를 잡아서 통치기를 하고 전담을 쌓아 올려 가마등을 만든다. 가마등을 만들 때는 흙을 가마에 올려 숯을 구울 때 숯구치는 고온에 견딜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5인이 공동으로 조를 이루어 “메”로 번갈아가면서 두드려 치게된다. 이때 숲가마 등을 만들면서 치면서 “등치기 소리”를 불렀다.

등치기 소리는 서로 보조를 맞추어 상호협력하여 쳐야 하기 때문에 목청이 좋은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부르고 나머지를 후소리에 맞추어 숲가마 등을 치게 된다. 가마에 진흙을 올려 초벌치기를 할 때는 느린 2음보격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애벌치기를 할 때는 자진소리를 부르게 되는 4·4조의 노동요이다.

II. 숯가마 등치기 소리 연출마당

첫째마당 / 입산(입장)

- 숯가마를 만드는 가마주인과 숯가마꾼들은 숯가마를 만들기 위한 메(방망이), 가래삽, 어랭이 등을 준비하여 산에 입산한다.

둘째마당 숯가마터 닦기

- 가래꾼과 등치기꾼은 가래질과 어랭이로 가마터를 닦고 흙을 날라 고르며 통치기와 전담쌓기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옮겨 숯가마에 집어 넣는다. 이때 선소리꾼의 선소리에 맞추어 훗소리꾼은 후렴을 받으며 숯가마 터닦기 소리를 한다.

셋째마당 숯가마 등치기 소리

- 선소리꾼의 등치기 소리에 맞추어 등치기꾼은 느린 동작으로 초벌치기를 하면서 후소리꾼과 함께 노동요인 등치기소리의 후렴을 받으며 작업을 한다. 초벌치기가 끝나면 등치기꾼은 선소리에 맞추어 후렴을 받고 빠른 동작으로 두벌(애벌)치기를 한다.

넷째마당 숯가마 치성

- 등치기소리를 하며 숯가마를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숯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숯가마 주인은 산신에게 숯을 잘 만들어 달라는 산치성을 올린다.

다섯째마당 한마당 놀이

- 산신에게 제를 올린 후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숯을 굽는 과정으로 숯가마 굴뚝에 연기를 올라가면, 숯가마꾼들은 힘든 노동이 끝난 것을 기뻐하며 숯이 잘 구어지기를 바라는 한마당 놀이판이 벌인다.

III. 숲가마 등치기소리 민속조사

숯을 구웠던 마을 남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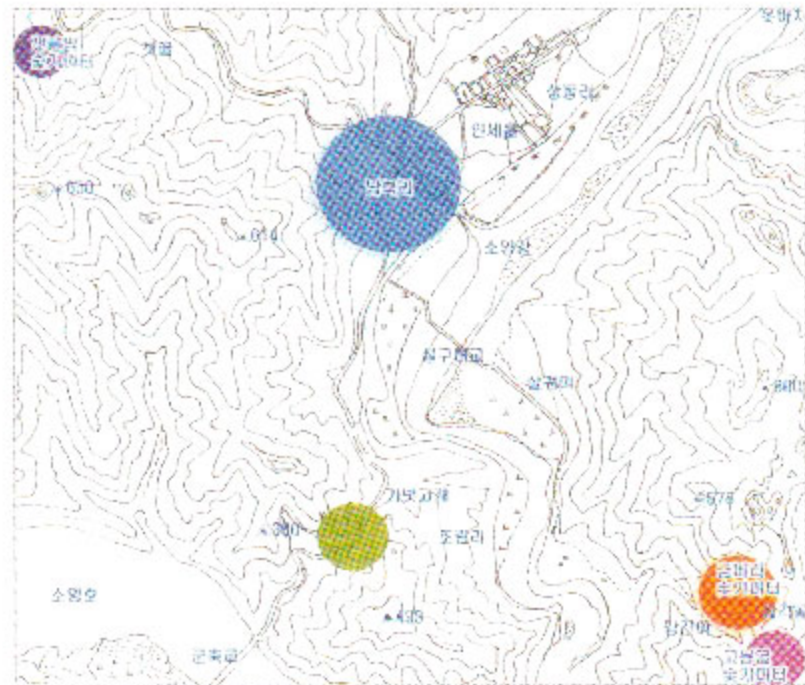
남북리는 본래 인제군 東面에 포함된 지역으로 살귀미, 조림이, 금발이, 뒤울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연마을들을 병합하여 남북리라 하고 군내면(郡內面)에 편입되었다. 남리와 북리를 병합했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국도 44호선을 따라 홍천에서 인제군에 진입하여 가넷고개를 넘으면 인제읍 시가지가 나오는데 시가지 진입로 마을이 남북리이다. 마을의 북쪽에는 진산으로 기룡산(북룡산)이 있고 내린천을 건너 동쪽으로는 안산인 비봉산이 있다. 남북리는 인제읍 소재지와 인접해 있는 남북 1리와 내린천 건너 있는 살귀미와 금바리, 남쪽 조림이인

남북 2리로 구성되어 있다.

기룡산 서쪽으로는 골이 깊고 산림이 풍부한 갯골이 위치하고 있어 산삼을 비롯하여 임산물이 풍부하며, 옛부터 숯을 굽는 장소로 유명하였다. 비봉산 남쪽 골짜기로는 소양호로 연결되는 골짜기들이 있어 송이버섯 및 산채가 많이 나고, 참나무 숲이 울창하여 옛부터 숯을 많이 구웠으며, 생산된 숯은 뗏목으로 한양 마포나루까지 운반되어 팔려졌다고 한다.



금바리와 갯골막의 솥굽기

남북리 소재 금바리 마을에서 북쪽 골짜기에 소재하고 있는 솥가마는 참나무솥을 주로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금바리 및 인제읍 갯골, 상동리 서릿골에서도 솥목상들에 의해서 솥굽기 생업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구전된다. 금바리에서 만들어졌던 솥은 뗏목을 이용하여 서울등지로 팔려나갔으며, 주변마을에서는 농사를 짓는 인부들이 채용되어 솥굽기 작업에 종사하였다.



금바리에 소재하는 솥가마는 4~5개 정도로 확인되었다. 현재 발견된 가마는 500~600m 산악의 참나무가 무성히 자라나 있는 2~3부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발견된 솥가마의 크기는 가로290cm × 세로310cm × 높이150cm 로서 작은가마의 규모이다.

솥가마의 제작시기는 약 20~30년전 정도로 추정되며, 솥가마 내부에는 만들어졌던 솥이 그대로 남아있어 솥굽던 당시의 방법과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은 도랑을 낀 골짜기의 2~3부능선에 위치한 솥가마는 자연스러운 둔덕에 주변의 막돌을 이용해 통치기와 전담쌓기를 하였고, 가마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제작되었다. 솥가마의 입구는 자연스럽게 도랑쪽으로 이루어졌고, 솥가마의 위치는 골짜기에서 이동과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고 주변에 참나무가 많은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된 가마의 내부에는 가마에 올려다졌던 황토흙이 구워진 상태였으며, 가마등에 사용되었던 흙은 황토흙으로 등치기와 고온에 의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가마안에서 발견된 솥은 참나무 원형대로 보존된 상태였다. 솥나무로 쓰인 참나무의 지름규격은 약 30cm~50cm정도이다.



숯가마 만들기 과정과 등치기

숯가마는 비탈이지나 바람을 불지 않는 장소에 터를 잡는다. 숯가마를 만드는 작업 과정은 ①가막박기 → ②나무세워놓기 → ③지붕덮기 → ④등치기 → ⑤쪽입히기 순으로 작업을 이루어졌다.

• 가막박기

인제 숯둔골 숯쟁이들은 숯가마 만들기를 가막박기라고도 일컫는다. 그만큼 가막박기는 숯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가막박기에는 “통치기”와 “전담쌓기”가 있다. “통치기”는 선택된 가마터를 방 처럼 일정한 크기로 사방을 깎고 다듬는 작업이다. “전담쌓기”는 사방으로 통쳐 놓은곳에 불길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숯가마는 크기에 따라 작은가마 · 중가마 · 큰가마가 있다. 가마의 전체 모양은 지붕 처럼 중앙이 약간 높고 가장자리가 약간 낮으며, 계란처럼 가로로 놓은 것 같은 타원형이다. 가마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높 이	가 로	비 고
작은가마	중앙부분 6자, 가장자리 4자	11자(2발) · 7자 반(1발 반)	
중 가 마	중앙부분 6자 반, 가장자리 4자 반	가로 17자(3발 반) · 14자(2발 반)	
큰 가 마	중앙부분 7자, 가장자리 5자 반	24자(4발 반) · 18자(3발 반)	

숯가마 크기에 따라 만드는 시일은 차이가 많이 있었다. 작은가마는 6일 반, 중가마는 13일, 큰가마는 25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6명을 기준으로 통치기와 전담쌓기까지이다. 굴뚝을 만드는 과정은 별도로 한사람의 하루 품이 더 든다.

“가막박기”는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므로 가마 만들기에 정성을 쏟는다. 한 번 굽고 난 다음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서 다시 쓰며 숯을 굽지 않는 여름철 우기에는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생솔가지 · 짚 · 가마니 등으로 숯가마 지붕을 덮어 둔다.

숯쟁이들은 “가마가 큰 財産”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마 만들기 · 보호 · 보수에 최선을 다한다. 가마를 새로 만들어서 굽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가마를 손질해서 굽는 것과는 시간 · 품 ·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기간이 7~25일이라는 시간과 품을 벌고, 작은 가마일 경우 1개월에 3회를 구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나무세워 넣기

가마가 완성되면 나무를 가마 속에 수직으로 세워 넣는다. 가마 중앙에 장찬 나무(제일 크고 좋은 나무)를 세우고 그 주위에 작은 나무들을 세워 넣는다. 작은 가마는 중앙木 6자, 주위木 4~5자, 중가마 중앙木 6.5자~7자, 주위木 4.5자~5.5자, 큰가마는 중앙木 8자~8.5자, 주위木 5.5자~6.5자 내외 짜리를 세워 넣는다.

한 가마 굽기의 나무량은 작은가마는 30짐, 중가마는 80짐, 큰가마는 200짐 내외가 소요된다. 소요되는 나무를 개수로 치지 않고 <짐>으로 셈한다. 밀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뽁뽁하게 나무를 세워 넣고 이리저리 밀어 본다. 흔들리거나 틈이 보이는 곳에는 작은 나무를 끼워 넣고 새기도 박는 등 보완작업을 한다.

• 지붕덮기

숯나무가 채워지면 지붕을 해 덮는다. 먼저 정사각형의 나무조각 “쪽”을 입힌다. 쪽은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 위에 가마니를 덮고, 또 그 위에 마른 진흙을 입힌다. 입힌 진흙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면 등치기할 때 무너지기 쉽다. 진흙 입히기는, 눈으로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랜 경험축적에서 오는 눈 대중과 손 감각이 없으면 안된다.

• 등 치 기

“등치기”는 쪽과 진흙을 입힌 숯가마나 지붕을 “메”로 치는 작업 행위이다. 이를테면 숯가마 지붕치기이다.

등치기에는 “애벌치기”와 “두벌치기”가 있다. 애벌치기는 여러 사람(2~10인)이 손잡이 길이 6자, 메 길이 2자, 직경 치 정도의 통나무메로 새벽(7시경)부터 해 질 때(6시경)까지 10~12시간을 빙빙 돌면서 친다.

두벌치기는 손잡이 길이 6자, 메 길이 6자, 직경 3치 정도의 통나무 메로 3~4기간 친다. 입힌 진흙의 두께가 골고루 같도록 빙빙 돌면서 친다. 쉬었다 치고, 참 먹고 치고, 술 마시고 친다. 등치기를 하면 1자 두께의 진흙이 반자로 준다. 등치기가 끝나면 “제창”이라고도 부르는 “등창”을 3개 뚫는다. 등창은 직경 6치 정도의 구멍으로 가마 윗부분에 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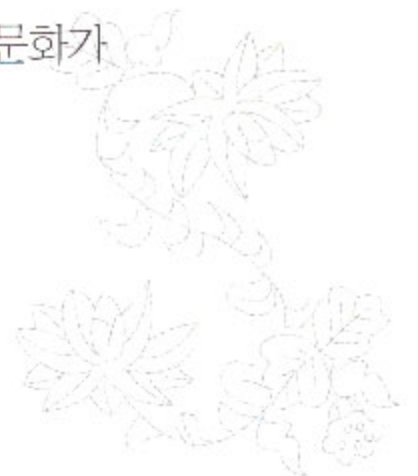
숲가마 등치기소리의 구비문학적 특징과 성격

숲을 굽는 일을 두고 일반사람들은 “배운 것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일” 이라고 하였다. 숲을 굽는 일은 보통사람들이 기피할 만큼 심한 노동력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이 생생히 살아숨쉬었던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숲을 굽는 “숲쟁이”들의 생활속에는 산촌지역의 민속문화가 생생히 살아 있다. 숲을 굽기 위해서는 산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산을 수호하는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극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에 노래를 수반해 일의 능률과 협력을 높였다.

숲가마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데, 나무를 베고, 목도를 하여 옮기고, 숲가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지기 위해 진흙으로 덮은 지붕을 여러 사람들이 <메>로 내려쳐야 한다. 이 등치기과정이 잘 되어야 숲가마가 제구실을 하고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쓰인다. 이 등치기에는 여러사람이 동작에 박자를 맞추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치기소리로 동작을 맞춘다. 아울러 등치기는 고된 노동이기에 힘든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른다. 등치기소리는 목청좋은 사람이 선소리를 매기면 모두가 훗소리로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4:4조의 노동요다. 이러한 4:4조의 노동요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남아있다.

등치기소리는 여러명에서 어울려 일하게 되는 집단노동요로서 한사람이 선소리를 매기면 모두가 훗소리로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가마에 진흙을 올려 초벌치기를 할 때는 느린 2음보격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애벌치기를 할 때는 자진소리를 하여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등치기소리(지경다지기)는 사설에서 볼 수 있듯이 “효부가”나 “효자가”의 사설을 인용해 교훈적이며, 교술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으며 창작되는 선소리꾼의 사설에는 희망과 부귀영화를 바라는 솔직한 심정이 서려있다. 즉 서민들의 사회상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민속문화인 것이다.



가래질소리 (가마터 닦기)

건곤이 개락하여
만물이 자생이라
백두산이 기봉하여
실낫같이 내려와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되었고나
우리나라 금수강산
어데를가나 푸른산
어데를가나 옥수로다
동남서북 토주지신
악한것은 수하소멸
천복만복 내려주소
가마터는 그만닦고
등치기로 들어가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에헤헤-에 가마터닦세

숯가마등치기소리 (초벌치기)

여기메가 어디메뇨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청정제일 인제로다
남면어론 숯둔골
함씨지씨 박씨가살아
함지박골이 생겼는데
숯을구워 먹고살아
숯둔이라 불려졌네
소북산을 들어가니
번개석이 보이누나
신수봉서 내려다보니
오개탕이 절경일세
방태산 심산유곡
골골마다 더듬어보니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구월심 비나이다
 가마치면 첩판되고
 숲을구면 상탄되네
 검탄백탄 우리탄아
 한번가면 다시못올
 이내인생 어찌할꼬
 공수래에 공수거인데
 부귀공명 탐하지마라
 부귀빈천 돌고돈다
 검탄백탄 우리탄아
 잘구워서 우리살자
 어허-라 탄이로다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 한바당소리

-경사났네 경사났네
 보이나니 백탄이요
 인제군의 참나무는
 산은푸르고 돌은흰데
 어델가나 푸른산에
 보고보고 다시봐도
 여기서도 백탄이요
 흑탄백탄 산적하니
 백탄한섬 쌀한섬에
 어떤사람은팔자가좋아
 우리네신세어찌하여
 직업에도 귀천있나
 일찍부터 배운포자
 남늘적에 놀지않고
 거부장자 별견인가
 오늘날은여기서놀고

우리동네 경사났네
 들리나니 돈소리라
 이나라에 보배로다
 사이사이 꽃이로다
 어델가나 옥수로다
 살기좋은 우리숲둔
 저기서도 흑탄일세
 너도나도 탐을내네
 너도나도 불티나네
 흥타령만 부르는데
 숲가마등치는일꾼됐나
 생김대로 놀아보세
 갈고담고 빛을내세
 남늘적에 아껴쓰니
 부자한번 되어보세
 내일날은 어디서노나



장르	민요명칭	숲가마 등치기 소리 (지경다집이)	등치기소리의 특징
기능		토목 노동요	숲가마등치기 소리는 산림을 이용한 노동요로서 "땅다지기", 말뚝박기, 달구지소리와 같이 일정한 기능을 위해 불려졌다.
가창방식		선후창 방식	등치기 소리는 땅다지기와 같이 규칙적인 노동의 움직임을 통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렴을 제외한 가사를 선창자가 부르고 이어서 후렴을 후창자가 부르는 방식이며, 선창자는 1명이고, 후창자는 여러명이다.
음격		2음보	등치기소리는 초벌치기에는 그다지 급격한 느낌을 주지 않는 음격이지만 애벌치기에서는 작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급격한 자진소리와 음격을 내기도 한다.
음보		4.4조	선창자와 후창자가 2구절을 번갈아 부르는 4.4조의 민요임.
가창자		남성요(집단노동요)	등치기 소리는 여성들의 유희요와 달리 대체로 격렬한 소리로 힘든 노동을 짧은 시간동안 부르며, 가창민요이고 분절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르		서정민요/서사민요	등치기소리는 전래적인 "효부가", "효자가", "답상가"의 가사를 이용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선창자가 즉흥적인 창작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작은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하는 자의 감정이나 의식을 자연스럽게 표출시켜 준다. 창작가사에서는 선창자가 노동의 내용이나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직감적,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서정민요이면서 효부가를 인용하여 부르는 점에서는 서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IV. 출연자 현황

배역	성명
숲가마주인 (연출지도)	박해순(남,83)
소리꾼	선소리 김종식(남,63) / 후소리 이춘근(남,62)
집사·축관	집사 심남섭(남,54) / 축관 김창연(남,65)
농기	대기 채상규(남,16) / 마을기 이종관(남,66) / 마을기 김진태(남,16)
풍물꾼	장태수(남,50) / 심옥섭(여,49) / 김미자(여,49) / 김혜자(여,52) 성향자(여,49) / 허영희(여,36) / 서연숙(여,37) / 정윤주(여,37)
가래질	김종복(남,72) / 손택용(남,71) / 라등용(남,53) / 정순철(남,62) 김철용(남,53) / 김석민(남,55) / 김효성(남,50) / 조해성(남,53) 박용운(남,68) / 박수홍(남,43)
등치기꾼	김영훈(남,43) / 이원희(남,41) / 심인용(남,41) / 장용구(남,35) 김영근(남,50) / 최한빛(남,16) / 박현성(남,15) / 이예현(남,15) 박금옥(여,68) / 전춘옥(여,44) / 채금숙(여,48) / 이선옥(여,43) 김신애(여,33) / 이규녀(여,39) / 손순덕(여,35) / 오향임(여,46)
지게꾼	홍성봉(남,79) / 박래신(남,74) / 박남순(남,73) / 장균익(남,81)
아낙네	강옥매(여,62) / 박화순(여,51) / 이정숙(여,57) / 손화자(여,57) 김재금(여,63) / 박화자(여,53) / 최명옥(여,65) / 안춘자(여,61)
마을어린이	심영빈(남,6) / 박선호(남,7) / 심수영(남,8) / 장운지(남,10)



인제 숲가마 등치기 소리



인제군
INJE COUNTY